

가능세계의미론을 기반으로 한 동적 양상 범주 연구*

백인영**

초록 이 글은 가능세계의미론의 양상 의미 분석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다른 양상 범주들과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동적 양상 범주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글이 기초하는 가능세계의미론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상의 의미 범주로서 확립한다. 따라서 양상과 관련되는 문법 범주에는 제한이 없으며 문법화 정도 또한 양상 표현 판별의 핵심 기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양상을 가능과 필연에 대한 것으로 정의한다. 양상이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들로 제한되지 않기에 개체의 능력, 의지 등과 관련되는 동적 양상 또한 정의상 양상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셋째, 양상 표현이 보이는 다의성이 양상 의미의 본연적 특성인 맥락의존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동적 해석을 포함한 문장에서의 다양한 양상 해석은 그것이 결합하는 맥락의 특성에서 결정된다. 이 글은 이러한 이론적 틀 안에서 동적 양상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동적 양상 표현들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였다. 동적 양상은 문장이 관심을 두는 개체 혹은 상황의 내재적 고유성에 따라 문장의 내용이 참일 가능성 혹은 필연성을 말하는 경우로, 다른 양상 범주와 마찬가지로 맥락적 의미인 대화 배경과 어휘적 의미인 양상적 힘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주제어 양상, 동적 양상, 우연적 구성, 가능세계의미론, 중의성, 맥락의존성, 대화 배경, 양상 연산자, 양상 부류, 양상 강도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이 글은 2021년 12월 18일에 열린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2021 공동 겨울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어 동적 양상 범주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발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눠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부족한 글을 꼼꼼히 읽고 평가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동적 양상(dynamic modality) 범주에 대한 충분한 의미론적 논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능세계의미론(possible worlds semantics)의 틀에서 동적 양상에 대한 의미적 정의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다양한 동적 양상 표현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 (1) ㄱ. 육아의 부담,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
 ㄴ. 당황한 학생들이 적잖이 있었겠어요.
- (2) 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ㄴ. 결과가 꼭 나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 (3) ㄱ. 한 손으로 머리를 묶을 수 있어?
 ㄴ. 이리다 지구가 곧 멸망할 수도 있고요.
 ㄷ.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죠.
- (4) ㄱ.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하려면 구월 모의평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ㄴ. 열심히 활용하시면 반드시 내신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양상(modality)을 문법 범주로 간주해 온 전통에서는 엄격하게는 (1)의 밑줄 친 표현만이, 관용을 발휘하면 (2)나 (3)의 밑줄 친 표현까지가 양상 범주로 논의되었다.¹ 그러나 (1)~(4)의 문장들이 보이는 의미적 공통성에

1 전영철(2022)에서는 'modality'를 화자의 '태도'라고 보는 데서 이른바 감정 양태라는 부류가 'modality'의 한 부류로 편입된 것으로 보고, '태도'의 해석을 유도하는 '양태'보다는 '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을 지적한다. 덧붙여 양상 논리와 연관성을 고려하여도 '양상'이 더 바람직한 용어임을 말한다. 이 글은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며 'modality'를 양상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무게를 두면 위의 예문들은 사태의 사실화와 관련한 의지, 능력, 허가, 의무, 혹은 사태의 사실성에 대한 확신, 추측 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다. 모두 양상 의미(modal meaning)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떤 문법적 형태로 실현되느냐에서 구별될 뿐이다.

양상을 의미 범주로 정의할 때, (1)~(4)는 모두 한국어의 양상 문장이 된다. 그리고 다음의 사실들을 시사한다. 첫째, 한국어에서 양상 의미는 어미뿐 아니라 우언적 구성, 부사 등 다양한 문법적 형태와 관련될 수 있다. 둘째, 하나의 양상 표현이 이른바 다의적인(polysemic)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3)을 보면 양상 표현 ‘-을 수 있-’은 주어가 지시하는 개체의 능력을 말할 수도,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말할 수도, 사태의 허용 가능성을 말할 수도 있다. 한국어의 양상 범주에 대한 이론적 논의라면 이러한 범형태적 특성, 다의적 특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학의 양상 연구는 양상의 정의, 하위 분류, 연구 대상 한정에서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형성해 왔다. 먼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양상의 일반적인 정의로 받아들여지면서 같은 맥락에서 ‘양태’라는 개념어의 사용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양상의 하위범주 구분 또한 정의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주의 및 유형론적 연구의 성과가 주로 원용되면서,² 한국어의 양상 범주는 양상 의미가 작용하는 ‘내용 단위’의 성격에 따라 명제 양태와 사건 양태로, ‘양상 의미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화(청)자 중심 양태와 주어 중심 양태로, 내용 단위를 의미적으로 한정하는 ‘태도’에 따라 인식 양태, 당위 양태, 동적 양태, 감정(평가) 양태 등으로

2 대표적으로 F. R. Palmer (1986/2001),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J. Bybee, R. Perkins, and W.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 van der Auwera and V. Plungian (1998), “Modality’s Semantic Map,” *Linguistic Typology* 2(1) 등이다.

하위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오랫동안 ‘-겠-’, ‘-더-’, ‘-리-’ 등의 선문말어미, ‘-지’, ‘-네’, ‘-구나’, ‘-을걸’, ‘을게’, ‘을래’ 등의 문말어미가 주요 기술 대상이 되면서, 한국어의 양상 체계에 대한 설명 또한 이들 어미의 의미를 기준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양상의 외연이 인식 양상으로만 제한되기도,³ 동적 양상이 양상 범주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⁴

기존 접근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양상의 외연을 적절하게 한정하지 못한다. 다른 양상 범주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이른바 ‘감정양태’와 같은 범주를 양상 논의에서 제외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사건 양태, 주어 중심 양태, 동적 양태 등을 논의에 포함하는 것이 정작 해당 이론들이 가정하는 양태의 정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둘째, 하나의 양상 표현이 여러 범주를 넘나드는 일이 매우 빈번함을 유연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대체로 인식 양상은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당위 양상은 ‘사태의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 동적 양상은 ‘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사태 내부의 참여자에게 있음’ 식으로 정의되어 왔는데,⁵ 이러한 정의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서는 ‘-을 수 있-’ 등이 맥락에 따라 이러한 의미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음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오랫동안 양상 어미를 중심으로 연구가 축적되면서, 인식양상, 증거성에 대한 것에 양상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양상 우연적 구성까지를 포함하면 한국어는 인식 양상, 증거성뿐 아니라 당위, 동적 양상 표현을 풍부하게 가지는 언어가 되어, 이들 범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이를 가능세계의미론을 기반으로 한국어의 동적 양상 우

3 장경희(1995), 「국어의 양태 범주의 설정과 그 체계」, 『언어』 20(3), 한국언어학회, pp. 191-205.

4 박제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5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pp. 310-311.

언적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동적 양상 범주의 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양상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을 수 있-’, ‘-을 것이-’ 등의 표현이 동적 양상 해석뿐 아니라 인식 양상, 당위 양상 해석을 함께 가진다는 점에서 양상 해석의 유연성에 대한 설명 또한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한국어 연구에서 동적 양상은 그동안 다른 양상 범주에 비해 소극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동적 양상의 의미 특성을 면밀히 살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가능세계의미론의 양상 의미 분석

한국어 연구에서 양상 연구는 문말 요소 중 시제나 상으로는 적절히 분석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마련하는 데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로 영어에 대한 기술주의 및 유형론적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한국어의 개별 양상 표현에 대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기술을 제공하려는 논의가 이후 연구 흐름의 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식의미론적 접근인 가능세계의미론의 양상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⁶

이 글은 가능세계의미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 한국어의 양상 범주에 대해 또 하나의 심화된 이해를 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미 다른 언어들에 대해 증명되었듯이,⁷ Kratzer의 일련의 논의로 대표되는 자연언어에

6 가능세계의미론을 한국어 양상 분석에 적용한 한국어학계의 논의로 이기용(1998), 『시제와 양상: 가능세계 의미론』, 태학사; 염재일(2005), 「‘-겠-’과 ‘-을 것’의 양태 비교 연구」, 『언어와 정보』 9-2, 한국언어정보학회, pp. 1-22; 양정석(2016), 「한국어 양상 표현의 통사 의미 분석」, 『언어와 정보』 20(2), 한국언어정보학회, pp. 57-92; 명정희(2021b), 「‘-어야/-어도 되-’의 양태 구문의 구조와 의미 해석」, 『언어학』 91,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pp. 139-164 등을 들 수 있다.

7 V. Brennan (1993), *Root and Epistemic Modal Auxiliary Verbs*, Amherst, University of

대한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은 양상 개념에 대한 의미적 정의, 양상 표현의 중의적 해석에 대한 이론적 해명, 범언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양상의 의미구조 표상을 제시하는 데서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⁸

2.1. 양상 논리

양상을 연구하는 언어학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언어의 양상 표현에 대해 직관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Kratzer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논리학의 양상 논리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자연언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를 조정·보강함으로써 자연언어의 양상에 대한 정연한 설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양상 논리는 명제논리-술어논리-고차논리로 발전되어 온 기존 논리에 ‘가능세계’(possible worlds) 개념을 추가한 것이다.⁹ 가능세계의 도입으로 인간의 추론 활동이 단지 실세계의 사실들뿐 아니라 많은 경우 실세계 밖의 예상되는 사실들까지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곤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Massachusetts Ph.D. dissertation; V. Hacquard (2010), “On the Event Relativity of Modal Auxiliari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8, pp. 79-114; V. Hacquard (2006), *Aspects of Modality*, Cambridge/Mass., MIT Ph.D. dissertation; K. von Fintel and A. S. Gillies (2007), “Might Made Right,” *To Appear in a Volume on Epistemic Modality*, edited by Andy Egan and Brian Weatherson, Oxford University Press. [http://mit.edu/fintel/fintel-gillies-2007-mmr.pdf](http://mit.edu/fintel/fintel-gillies-2007-mm.pdf); P. Portner (2009), *Mod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등.

8 A. Kratzer (2012), *Modals and Conditionals*, Oxford University Press; A. Kratzer (1991), “Modality,” *Semantik/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ed. by A. von Stechow and D. Wunderlich), Berlin: de Gruyter, pp. 639-650; A. Kratzer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Words, Worlds, and Contexts* (ed. by H.-J. Eikmeyer and H. Rieser), Berlin: de Gruyter, pp. 38-74; A. Kratzer (1977), “What “must” and “can” Must and Can Mea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1), pp. 337-355 등.

9 이러한 일련의 이론적 보완은 모두 인간의 추론 체계를 보다 온전한 모양으로 포착하고자 한 노력에 따른 것이다.

되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하지 않는 문장들을 얼마든지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다.

- (5) ㄱ. 가르시아와 로이스터는 어쩌면 운명 공동체일지도 몰라.
 ㄴ. 수사관에게는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인식이 있어야 해.

(5)에서 화자는 현실에서 가르시아와 로이스터가 정말 운명 공동체인지, 수사관에게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인식이 있는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이 문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도 아니다. (5ㄱ)은 화자가 생각하는 세계의 가능한 한 모습을, (5ㄴ)은 화자가 생각하는 세계의 어떤 필연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자체로 현실 세계의 모습은 아니나 ‘그럴 수 있는’ 혹은 ‘그래야 하는’ 세계의 모습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가능세계는 바로 이러한 사고 체계,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언어 현실에 대해 매우 직관적이고 간명한 기술 도구가 되어 준다. ‘당장의 현실일 필요가 없는 것, 그렇지만 가능하거나 필연적인 것’은 가능세계의 개념, 즉 세계가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에서 쉽게 논의될 수 있다.

그리고 양상을 ‘가능세계에서의 가능과 필연의 문제’로 정의하는 것은 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 (6) 수사관에게는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인식이 있어야 해.
 상황 1. 청자는 1년 차 수사관이고 화자는 10년 차 베테랑 수사관이다.
 상황 2. 청자는 1년 차 수사관이고 화자는 청자의 이제 막 8살이 된 동생이다.

(6)은 상황 1과 상황 2에서 전혀 다른 청자의 반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청자는 상황 1에서는 (6)의 발화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겠지만 상황 2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차이는 세계의 모습이 반드시

시 그러해야 함, 즉 ‘필연’에 대한 말하기가 본연적으로 ‘관련되는 근거들’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수사관의 자질과 관련하여 10년 차 수사관에게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8살짜리 아이에게선 그렇지 않다. (6)이라는 발화의 신뢰성은 곧 (6)을 발화하는 화자가 가진 근거들에 달려 있다.

양상 논리는 이러한 두 가지의 직관을 가능세계(w)에 작용하는 연산자인 가능(possibility, \Diamond)과 필연(necessity, \Box), 그리고 추론 내용이 검증될 영역인 가능세계들의 집합을 한정하는 것으로 포착한다. 이때 가능세계의 집합은 인식(epistemic)과 당위(deontic)라는 두 가지 접근가능관계(accessibility relation, R)를 바탕으로 한정된다. 인식 양상은 인식적 접근가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모두 참이 되는 가능세계를, 당위 양상은 당위적 접근가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모두 참이 되는 가능세계를 한정하고, 이들 중 문장이 기술하는 명제가 참이 되는 세계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세계들만이 존재하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리하면, 양상은 {인식적/당위적} 접근가능세계에 대한 {가능성/필연성} 추론으로 정의된다.¹⁰ 이때 가능과 필연은 가능세계에 작용하는 존재양화(\exists)와 전칭양화(\forall)로, 결국 양상 논리에서 양상은 접근가능세계에 대한 양화로 이해된다.¹¹

다음과 같은 자연언어 문장의 의미가 이러한 양상 논리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설명됨을 볼 수 있다.

10 여기서 양상 논리가 접근가능관계와 양상 연산자의 설정 모두에서 이원적(binary)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언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상 논리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11 즉, 전통적인 양상 논리에서 양상 의미는 절대적인 쌍대성(duality)을 가진다. 양상적 힘은 가능 혹은 필연 둘 중 하나이며, 명제 p 가 가능하다는 것은 ‘not p 가 필연적이지 않음’으로, 명제 p 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not p 가 가능하지 않음’으로 상호 정의된다. 간략히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Diamond p = \neg \Box \neg p$, $\Box p = \neg \Diamond \neg p$ (참고: $\exists w = \neg \forall \neg w$, $\forall w = \neg \exists \neg w$)

(7) ㄱ.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닭이 날 수도 있다.

ㄴ. (국가법에 따르면)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7ㄱ)은 내가 아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의 접근 가능한 세계들 중에는 ‘닭이 나는 것’이 참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7ㄴ)은 국민들이 국가법을 따르는 이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의 접근 가능한 세계에서는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예외없이 참’이라는 식으로 그 의미가 표상될 수 있다. 적절한 범위 한경과 그에 대한 양화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양상 논리의 체계가 (7)과 같은 자연언어의 양상 문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¹² 그런데 아래의 문장들은 위의 논리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것 같다.

(8) ㄱ. 나는 두발자전거를 탈 수 있다. (화자는 두발자전거 타는 법을 익혔다)

ㄴ. 곧 비가 올 것이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있다)

(8ㄱ)에서 추론의 근거는 알려진 모든 사실이나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기보다는 ‘나’라는 특정 개체에 대한 어떤 사실, 화자가 ‘자전거 타는 법을 익혔다’라는 사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한편 (8ㄴ)은 단지 ‘곧 비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의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필연성은 아니나 그에 상당히 가까움을 이야기한다. 자연언어의 양상 의미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당위 외의 어떤 추가적인 접근가능관계가, 또 한편으로는 가능과 필연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양상 연산자가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 www.kci.go.kr

12 (5)의 두 예문의 의미 또한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2.2. Kratzer의 양상의미론

Kratzer (1977, 1981, 1991, 2012)는 양상 논리의 이론적 틀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자연언어의 설명에 보다 적합하도록 몇 가지 방향으로의 이론적 발전을 꾀하였다. Kratzer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양상 표현이 중의적 해석을 가지는 경우, 이는 어휘적 차원이 아니라 맥락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즉, 양상 표현의 의미는 어휘적 부분과 맥락적 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둘째, 인식적 필연과 인식적 가능, 당위적 필연과 당위적 가능 외에도 다양한 종류 혹은 관점의 가능과 필연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구별하여 설명할 방법을 고안한다. 셋째, 자연언어의 양상 의미에는 필연과 가능의 이원적인 구분을 넘어, 중간적인 양상 의미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도 혹은 강도를 가지는 양상 표현들을 포착한다.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Kratzer (1977/2012)는 영어의 양상 표현 ‘must’가 다양한 의미 해석을 가질 수 있음을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제시한다.¹³

- (9) ㄱ. All Maori children must learn the names of their ancestors.
 ㄴ. The ancestors of the Maoris must have arrived from Tahiti.
 ㄷ. If you must sneeze, at least use your handkerchief.
 ㄹ. When Kahukura-nui died, the people of Kahungunu said:
 Rakaipaka must be our chief. [A. Kratzer (1977), p. 338]

‘must’는 (9ㄱ)에서는 개체에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당위’ 해석을, (9ㄴ)에서는 화자의 지식과 관련되는 ‘인식’ 해석을, (9ㄷ)에서는 청자가 가

13 Kratzer (2012)는 Kratzer가 양상, 조건에 대해 논의한 자신의 기존 연구 중 핵심적인 것들을 추린 후, 내용을 조금씩 손보아 출판한 책이다. Kratzer (1981)과 Kratzer (1977)도 여기에 재수록되었다.

지고 있는 성향 혹은 특성에 대해 말하는 이른바 ‘기질’(dispositional) 해석을, (9ㄷ)에서는 화자의 선호 혹은 바람과 관련되는 ‘소망’(bouletic) 해석을 가진다.¹⁴ 적어도 네 개의 서로 다른 ‘must’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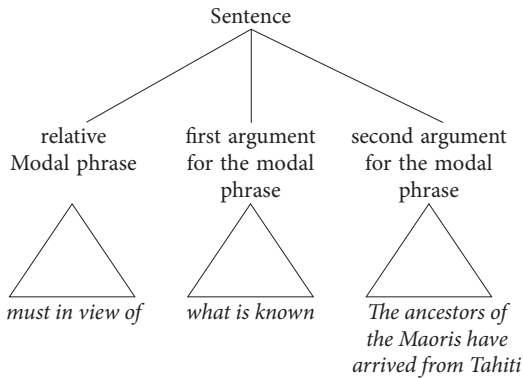
주목할 것은 Kratzer가 (9)의 문장들이 다음의 (9')의 문장들로 각각 환언될 수 있음을 이어서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9)에는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의미적 부분들이 (9')에서는 ‘in view of~’의 표현구를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 (9') ㄱ. *In view of what their tribal duties are*, All Maori children must learn the names of their ancestors.
- ㄴ. *In view of what is known*, The ancestors of the Maoris must have arrived from Tahiti.
- ㄷ. *If -in view of what your dispositions are-* you must sneeze, at least use your handkerchief.
- ㄹ. When Kahukura-nui died, the people of Kahungunu said: *in view of what is good for us* Rakaipaka must be our chief.

[A. Kratzer (1977), p. 340]

(9')의 각각의 문장에서, (9ㄱ)의 ‘당위적 must’는 ‘종족의 의무들을 고

-
- 14 (9)의 ‘must’는 한국어로는 모두 우연적 구성 ‘-어야 하-’에 대응될 수 있다. (9ㄱ)은 ‘모든 마오리 아이들은 조상의 이름을 배워야 한다’로, (9ㄴ)은 ‘마오리의 조상은 타히티에서 왔어야 한다’로, (9ㄷ)은 ‘재채기를 해야겠으면, 손수건에 해’로, (9ㄹ)은 ‘라카이파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로 번역될 수 있다.
- 15 개별 문장에서의 양상 표현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쉬운 방법으로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 보는 방법이 있다. 가령 (9)에 대해 대화상대자가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되묻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화자는 “그게 종족의 관습이니까”, “역사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원래 재채기를 못 참으니까”, “라카이파카를 제일 좋아하니까”와 같이 대답할 것이다. 이는 양상 추론의 근거 부분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9)가 각각 당위적·인식적·기질적·소망적 양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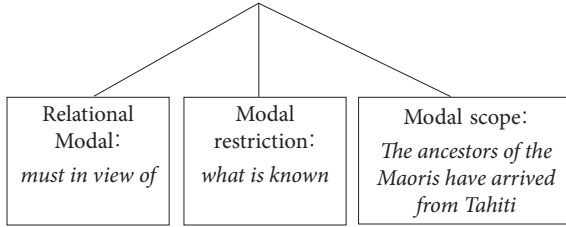
출처: A. Kratzer (1977), p. 341.

[그림 1] 'must'를 포함한 양상 문장의 의미구조

려할 때'의 'must'로, (9_ㄴ)의 '인식적 must'는 '알려진 바를 고려할 때'의 'must'로, (9_ㄷ)의 '기질적 must'는 '청자의 기질들을 고려할 때'의 'must'로, (9_ㄹ)의 '소망적 must'는 '우리에게 좋은 방향을 고려할 때'의 'must'로 대응된다. 'must'의 다양한 의미로 파악되었던 당위, 인식, 기질, 소망과 같은 의미 부분이 'in view of~'의 표현구를 통해 'must'와 분리된 것이다. 이는 (9)의 네 문장의 의미 차이가 'must' 자체가 아니라 'must'의 해석을 위해 암시적으로 도입되는, 언어적으로는 'in view of~' 표현구로 제시될 수 있는 그러한 의미 부분에 달려 있으며, 'must' 자체는 '명제 내용이 필연적이다'라는 중립적인 의미만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Kratzer는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모든 자연언어의 양상문이 [그림 1]과 같은 의미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양상 문장의 의미구조는 크게 세 부분, 하나의 함수자와 두 개의 논항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9_ㄴ)의 의미는 'must in view of~'와 같은 관계적인 양상 표현이 'what is known'과 같은 첫 번째 논항과 'the ancestors of the Maoris have arrived from Tahiti'라는 두 번째 논항을 취할 때 온전하게 구성된다. [그림 2]의 표상은 이를 보다 명시적인 용어들을 바탕으로



출처: A. Kratzer (2012), p. 7.

[그림 2] 'must'를 포함한 양상 문장의 의미구조

다시 제시한 것이다.¹⁶

[그림 2]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포함한다. 첫째, 양상 표현은 이미 그 어휘 의미 차원에서 맥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의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적인'(relational) 개념으로 파악된다. 양상 표현을 단지 'must'가 아니라, 'must in view of'로 표상한 데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둘째, 양상 표현의 다양한 해석은 맥락 한정(restriction) 부분에 달려 있다. 관계적 양상 표현이 관계 맺는 맥락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인식 해석, 당위 해석 등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양상 의미는 양상 표현이 결합하는 문장 전체를 작용역으로 한다. 양상 표현은 관련되는 맥락에 따라 해당 문장이 참일 가능성, 필연성을 말하는 연산자로 기능한다.

Kratzer 이론의 설명력은 이처럼 양상 표현의 의미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데서 확보된다. 양상 표현은 가능 혹은 필연과 같은 양상적 힘(modal force)을 자신의 고정적 의미로 가지면서, 관계 맺는 맥락에 따라 인식, 당위 등 서로 다른 해석을 부여받는다. 양상 의미는 양상적 힘(어휘적 의미)와 양상 제약부(맥락적 의미)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Kratzer는 이 중 두 번째 의미 성분을 대화 배경(conversational back-

16 양화 의미구조 표상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약부(restriction), 작용역(scope)은 양화 의미의 삼부구조(tripartite structure)를 명시화할 때에 사용된 용어이다. I. Heim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를 참고할 수 있다.

grounds)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대화 배경은 ‘what is known’과 같은 표현에 의해 지시되는 종류의 실체로, 추론의 근거가 될 명제들의 집합을 제공한다. 즉, 대화 배경은 가능세계를 취해 명제들의 집합을 산출하는 함수로, 양상 논리의 접근가능관계에 대응된다. 가령, 인식적 대화 배경은 가능세계 w 를 취하여 그 세계에서 알려진 모든 명제들로 이루어진 집합인 $f(w)$ 를 산출한다.¹⁷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필연과 가능의 양상적 힘을 가진 양상 문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다.

- (10) ㄱ. 어떤 명제가 $f(w)$ 의 논리적 귀결일 때,¹⁸ 그 명제는 대화 배경 f 에 따라 가능세계 w 에서 단순 필연이다.
 ㄴ. 어떤 명제가 $f(w)$ 와 양립가능할 때,¹⁹ 그 명제는 대화 배경 f 에 따라 가능세계 w 에서 단순 가능하다. [A. Kratzer (1981), p. 293]

양상 표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은 대화 배경에 달려 있다. 인식적 해석은 그 대화 배경 f 로 인식적 대화 배경이 선택된 결과이며, 다른 종류의 대화 배경이 상정되면 문장은 다른 양상 해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Kratzer의 양상의미론에서는 인식 양상과 당위 양상 외에도 다양한 양상 해석들이 모두 (10)의 틀 안에서 동등하게 설명될 수 있다. Kratzer (1981)에서는 인식적 대화 배경, 당위적 대화 배경 외에도 사실적(realistic), 고정관념

17 “인식적 대화 배경은 명제들의 집합을 다음과 같은 W 의 구성원들에 할당하는 함수 f 이다. W 의 원소인 모든 가능세계 w 에 대해, $f(w)$ 는 w 에서 어떤 집단, 공동체에 구축되어 있는 지식인 모든 명제들의 집합을 포함한다.” [A. Kratzer (1981), p. 295] 마찬가지로 당위적 대화 배경은 누군가 혹은 법에 의해 w 에서 명령된(요구된) 그러한 모든 명제들을 포함하는 명제들의 집합 $f(w)$ 를 도입하는 함수자 f 이다.

18 “ p 가 A 의 모든 명제가 참인 W 내 모든 세계들에서 참이 될 때, 명제 p 는 명제들의 집합 A 의 논리적 귀결이다.” [A. Kratzer (1991), p. 641]

19 “ $A \cup \{p\}$ 가 비모순적일 때에만, 명제 p 는 명제들의 집합 A 와 양립가능하다.” [A. Kratzer (1991), p. 641]

적(stereotypical), 목적적(teleological), 소망적(bouletic) 대화 배경 등을 제시한다.²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필연과 가능에 대한 말하기, 즉 다양한 양상 의미들이 적절하게 포착되었다.²¹

양상 표현의 이른바 다의적인 혹은 중의적인 특성은 이러한 이론 틀에서 간명하게 설명된다.

- (11) ㄱ. (땀이 젖은 걸 보니) 아까 비가 왔을 수 있다.
 ㄴ. (시험 규정상) 응시자는 검정색 혹은 파랑색 펜을 쓸 수 있다.
 ㄷ. (이제 많이 커서) 나는 혼자 밥 한 공기를 다 먹을 수 있다.

(11)의 세 문장은 모두 ‘-을 수 있-’이라는 동일한 양상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만 (11ㄱ)은 추측의 의미인 인식적 해석을, (11ㄴ)은 허가의 의미인 당위적 해석을, (11ㄷ)은 ‘나’의 특성과 관련되는 기질적 해석을 가진다.²² Kratzer 이론에서 이러한 의미 차이는 발화 상황에서 전제되는 대화 배경이 다르다는 것으로 포착된다. 여기서는 그 대화 배경의 성격이 서로 다를

20 사실적 대화 배경은 현실 세계의 사실들과, 고정관념적 대화 배경은 정상적인 사건의 진행과, 목적적 대화 배경은 목표와, 소망적 대화 배경은 바람과 각각 관련된다[A. Kratzer (1981), pp. 295-296].

21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Kratzer는 능력, 기질 등과 관련되는 대화 배경을 따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위한 대화 배경을 따로 정의함으로써, 동적양상을 인식양상, 당위양상과 같이 독립적인 양상 부류로 상정하고자 한다.

22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는 하나의 양상 표현이 둘 이상의 양상 부류에 걸쳐 있는 의미적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양상 표현의 중의성이 항상 양상 부류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J. van der Auwera and A. Ammann (2013), "Overlap between Situational and Epistemic Modal Marking,"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ed. by Matthew S. Dryer and Martin Haspelmath), Leipzig: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Available online at <http://wals.info/chapter/76>, Accessed on 2022-04-29)에 따르면, 하나의 양상 표현이 인식적 가능성과 인식적 필연성의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언어도 있다. 이 경우에는 맥락에 따라 양상 강도와 관련된 중의성이 해소될 것이다.

괄호 안의 언어적 표현으로 보였다.

한편 (11)의 세 문장은 그 의미가 모두 위의 (10L)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을 수 있-’은 세 문장 모두에서 ‘가능성’을 그 공통 의미로 가진다.²³ 종합하면, (11)의 각 문장에서의 다양한 양상 의미는 ‘-을 수 있-’의 ‘가능성’이라는 양상적 힘에 각각 지식, 규범, 기질과 관련 되는 서로 다른 맥락이 결합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11)의 ‘-을 수 있-’을 다른 양상 표현인 ‘-어야 하-’로 대체해 보면 이러한 특성을 더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

(11') ㄱ. (땅이 젖은 걸 보니) 아까 비가 왔어야 한다.

ㄴ. (시험 규정상) 응시자는 김정색 혹은 과량색 펜을 써야 한다.

ㄷ. (이제 많이 커서) 나는 혼자 밥 한 공기를 다 먹어야 한다.

(11')를 통해 우리는 두 양상 표현 ‘-어야 하-’와 ‘-을 수 있-’이 그 양상적 힘에서 서로 구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1)이 다양한 대화 배경을 바탕으로 할 때 문장이 기술하는 모습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가능성’의 양상적 힘을 ‘-을 수 있-’을 통해 표현하는 문장이라면, (11')은 같은 대화 배경들을 바탕으로 하되, 문장이 기술하는 모습의 세계만이 존재한다는 ‘필연성’의 양상적 힘을 ‘-어야 하-’를 통해 표현한다. 이러한 비교에서 우리는 양상 문장에 대한 적절한 의미 표상이라면 그 대화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양상적 힘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모두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3 시정곤·김건희(2009)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의 통사·의미론」, 『국어학』 56, 국어학회, pp. 131-160; 이정훈(2020), 「-을 수 있- 구문의 어휘항목과 통사구조 그리고 의미」, 『국어학』 95, 국어학회, 65-113에서도 ‘-을 수 있-’의 공통 의미를 ‘가능성’이라고 본다. 다만 이들에게서 가능성의 의미는 의존명사 ‘수’의 의미로서, 이 글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Kratzer는 마지막으로 양상적 힘의 정도적(graded) 성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 (12) ㄱ. It is barely possible to climb Mount Everest without oxygen.
 ㄴ. It is easily possible to climb Mount Toby.

[A. Kratzer (1991), p. 643]

- (11'') ㄱ. (땅이 젖은 걸 보니) 아까 비가 왔을 것이다.
 ㄴ. (이제 많이 커서) 나는 혼자 밥 한 공기를 다 먹을 것이다.

양상 논리에서 '가능성'은 논리적 양립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포착되기에, 하나의 명제는 명제들의 집합과 양립가능하거나 불가능할 뿐, '더' 양립가능하거나 '덜' 양립가능할 수는 없다. 그러나 (12)의 두 예문은 '가능성'에도 낮은 가능성과 높은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 주며 (11'')의 두 예문은 '-을 것이-'가 (11)의 '-을 수 있-', (11')의 '-어야 하-' 모두와 구별되면서도, '-어야 하-'에 가까운 의미를 표현함을 말해 준다.

Kratzer (1981, 1991)은 이러한 자연언어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 가능과 필연이라는 양상 논리에서의 두 양상적 힘에 더해, 'slight possibility', 'good possibility', 'weak necessity' 등의 다양한 양상적 힘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12)는 상식적으로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토비산에 오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함을 말하는 문장들로, 각각 인식적 대화 배경에 따라 'slight possibility', 'good possibility'의 양상적 힘을 가지는 문장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론적 확장에서 (11'')의 '-을 것이-'의 의미 또한 주어진 대화 배경에 따라 명제의 '약한 필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지금까지 Kratzer의 가능세계의미론이 제공하는 자연언어의 양상 표현에 대한 직관적이고 명료한 설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13) ㄱ. 양상은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ㄴ. 양상은 의미적 범주로, 이를 표현하는 정해진 통사 범주는 없다.

ㄷ. 양상 표현은 양상적 힘과 대화 배경이라는 두 개의 의미 성분을 가진다.

① 양상적 힘(양상 강도): 가능, 약간 가능, 꽤 가능, 약한 필연, 필연 ...

② 대화 배경(양상 부류): 인식, 당위, 기질, 소망 ...

ㄹ. 양상 표현의 다의성 혹은 중의성은 양상의 맥락의존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어떤 표현이 양상 표현인가 하는 것은 (13ㄱ)을 바탕으로 판별된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양상 표현으로 판별되면 그것의 양상 의미는 (13ㄷ)에 따라 {양상 부류}+{양상 강도}의 의미 부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가령, (11ㄱ)의 '-을 수 있-'은 문장이 비가 왔을 가능성에 대한 말하기라는 점에서 양상 표현으로 판별되며, 그 해석에 땅이 젖어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화자가 알고 있는 바가 전체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인식적' 양상 표현으로, 그러한 추론의 강도가 필연보다 약한 정도라는 점에서 '약간 가능~꽤 가능'의 양상적 힘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동적 양상 표현들의 의미를 설명하기로 한다.

3. 동적 양상 범주의 의미 특성

이 장은 동적 양상 범주에 대한 면밀한 의미론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관련하여 한국어 연구에서 동적 양상이라는 범주의 설정이 정말로 필요

한 것인지 그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²⁴ 양상 범주를 크게 인식 양상, 당위 양상, 동적 양상의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이 일반언어학의 양상 논의의 오랜 전통이었다고 하지만,²⁵ 이것이 그 자체로 한국어에서도 동적 양상 범주를 설정해야 하는 충분한 근거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1. 동적 양상이라는 범주 설정의 필요성

아래의 예문은 서론에서 제시한 문장 중 일부를 다시 가져온 것이다. 추측, 확신과 같은 인식 양상 의미와는 다르지만, 문장에서 ‘-겠-’, ‘-을 것이-’, ‘-을 수 있-’이 문장이 기술하는 내용이 필연적인지 혹은 가능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4) ㄱ. 육아의 부담,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
 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ㄷ. 한 손으로 머리를 뚬을 수 있어?

가령, (14ㄱ)은 국가의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는 세계에서라면 반드시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는 사태가 존재할 것임을, (14ㄴ)은 주어가 지시하는 개체의 능력이 제대로 구현되는 세계라면 그가 한 손으로 머리를 뚬는 사태가 발생 가능할지를 이야기하는 문장이다. 즉, 이들은 한국어의 양상 문장으로 판별되며 따라서 한국어의 양상 이론이라면 (14)의 ‘-겠-’, ‘-을 것이-’, ‘-을 수 있-’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도 적절한 분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음의 예문들에서도 마찬가지다.

24 이러한 견해는 어미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양상 연구에서 주로 제기되었다.

25 P. Portner (2009), *Mod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p. 138.

- (15) ㄱ. 지민이는 100m를 13초에 뛸 수 있어.
 ㄴ. 지민이는 코너링을 빠르게 함 직해.
 ㄷ. 그 사람은 여러모로 성공할 만해.
 ㄹ. 내가 개 대신 갈까 해.
 ㅁ. 나는 내일 늦잠을 잘 거야.
 ㅂ. 이번엔 내가 이기고 말 테다!

(15)의 문장들은 주어의 능력, 기질,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 혹은 일어날 필연성을 기술한다. 이는 한국어에 인식, 당위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어떤 양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존재함을, 따라서 인식 양상 범주, 당위 양상 범주에 더하여 이들을 포괄할 적절한 양상 범주의 설정이 추가로 필요함을 분명하게 시사한다.²⁶

기존 논의들은 바로 이러한 의미들을 포괄하는 범주로서 동적 양상이라는 범주를 일반적으로 설정해 왔다.²⁷ 그러나 (15)의 표현들을 포착하고 이들을 위한 범주로 동적 양상을 설정하면서도, 범주를 지칭하는 용어인 ‘동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범주 안에 능력, 의지, 기질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의미들이 포함됨에도 이들을 하나로 묶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15)의 다양한 표현들을 설명하기 위해 동적 양상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범주에 속하는 표현들이 공유하는 의미 속성을 명시적으로 제

26 한국어에서 이른바 동적 양상 의미는 주로 우연적 구성들을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어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러한 범주 설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양상 우연적 구성들을 포함하면 한국어 양상 연구에서 해당 범주의 설정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27 임동훈(2008), 「한국어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pp. 211-249; 박진호(2011)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인식 양상, 당위 양상 범주와 함께 동적 양상 범주를 설정한 최근 논의로는 다카치 토모나리(2014), 「현대 한국어 문법적 언어의 양태체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혜옥(2016), 「한국어 양태 범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을 들 수 있다.

시하고 동시에 그것이 ‘동적’이라는 용어로 대표될 만한 것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적 양상은 전체 양상 의미에서 인식 양상 의미와 당위 양상 의미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들을 한데 묶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정의된 범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3.2. 동적 양상에 대한 기존 정의

동적 양상(dynamic modality)이라는 개념어는 von Wright (1951)의 논의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von Wright (1951)은 Geach 선생님의 도움으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면서,²⁸ 동적 양상을 ‘능력과 기질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해당 범주를 ‘dynamic’으로 명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동적’은 능력과 기질 의미를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cover term)로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용어 사용 방식은 이후의 논의들로 그대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인식 양상이 ‘지식과 관련한 것’, 당위 양상이 ‘규범과 관련한 것’과 같이 범주 명칭인 ‘인식’, ‘당위’와의 직접적인 의미적 관련 속에서 논의된 것과 달리, 동적 양상 범주에 대한 정의적 설명은 범주 안에 어떤 구체 의미들이 포함되는지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6) ㄱ. Palmer (1990, p. 7): “concerned with the ability and volition of the subject of the sentence”

ㄴ. Palmer (2001, p. 10): “relates to ability or willingness, which comes from the individual concerned”

28 G. H. von Wright (1951), p. 28. 관련하여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Geach 선생님과 개인의 대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We shall call the modal concepts, which refer to abilities and dispositions, dynamic modalities. (I am indebted for the term to Mr. GEACH.) (p. 28)”

ㄷ. Huddleston and Pullum (2002, p. 178): “concerned with properties and dispositions of persons”

(16)에서 볼 수 있듯이, 동적 양상은 대체로 ‘주어 혹은 특정 인물’과 관련한 ‘능력, 의지, 기질, 속성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von Wright (1951)의 기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 아래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전형적인 동적 양상 문장으로 검토되었다.

(17) ㄱ. He can run a mile in five minutes. [H. R. Palmer (2001), p. 10]
 ㄴ. I will be back before six.

[R. Huddleston and G. Pullum (2002), p. 192]

(17ㄱ)은 주어인 ‘he’의 능력에 따르면 ‘그가 오분 안에 일 마일을 달릴 가능성이 있음’을, (17ㄴ)은 주어인 ‘I’의 의지에 따르면 ‘내가 여섯시 전에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 즉, (16)의 정의는 (17)의 문장들을, 더 나아가서는 위의 (14), (15)의 한국어 문장들까지를 동적 양상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논의할 수 있게 해 준다. (16)과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양상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분명한 이론적 유용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문장의 존재에서 이러한 범주 정의는 다소 위태로워진다.

(18) ㄱ. This machine can lift a house. (ability)
 ㄴ. This river will freeze if the temperature goes below -15 Centigrade. (dispositional) [김용범(2017), p. 711]

(19) ㄱ. It can rain really hard here. [M. Hackl (1998), p. 14]
 ㄴ. A lot of people can jump into this pool. [M. Hackl (1998), p. 36]

(18)은 인물이 아닌 무정물 주어의 능력, 기질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19)는 문장의 주어가 아닌 문장이 기술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속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16)의 정의에서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18), (19)는 ‘기계, 강, 이 곳, 수영장’의 특성에 따르면 문장이 기술하는 상황이 참일 가능성이 있음 혹은 높음을 말한다는 점에서 (17)과 매우 유사한 양상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양상의 하위 범주로는 (17)뿐 아니라 (18), (19)의 ‘can’, ‘will’이 속할 만한 것 또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장들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후 동적 양상에 대한 의미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Radden and Dirven (2007, p. 246)의 정의를 가져와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0) “Intrinsic and disposition modalities are sometimes also referred to as **dynamic modality**. Intrinsic modality is concerned with potentialities arising from intrinsic qualities of a thing or circumstances. Disposition modality is concerned with a person’s or thing’s intrinsic disposition, which has the potential of being actualised. Disposition modality includes the notions of ‘ability’ or ‘propensity’ and ‘willingness’.”

동적 양상 의미가 주어, 인물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물, 더 나아가서는 상황의 잠재적 가능성까지를 포함하도록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의지적인 주어를 포함한 (18)도, 가능성의 판단이 주어가 아닌 부사어(장소)의 속성에 근거하는 (19)도 동적 양상 범주로 들어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can’, ‘will’과 같은 양상 표현들이 가지는 다양한 양상 의미들이 빠짐없이 특정한 하위 범주 안에 속할 수 있게 되면서, 양상 범주를 인식, 당위, 동적 양상의 세 하위 범주로 구분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0)은 또한 동적 양상에 포함되는 다양한 하위 의미들을 ‘내재

적'(intrinsic)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설명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능력, 기질, 잠재성 등은 개체 혹은 상황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속성이라는 점에서, 의지, 의향 등은 개체의 심적 상태라는 점에서, 이들 의미를 관통하는 의미적 속성으로 내재성을 도입한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논의에서의 동적 양상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 (21) ㄱ. 박진호(2011, p. 311):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사태 내부의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ㄴ. 손혜옥(2016, p. 43): “사건 실현성이 주어 지시 대상 내부에 있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16)의 전통적 정의보다 발전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위의 두 정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동적 양상을 ‘사태의 발생 가능성 혹은 실현성’이 ‘사태 내부 참여자 혹은 주어 지시 대상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범주 전체에 대해 하나의 의미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특성으로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 예문들이 적절하게 포괄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안정적인 정의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1)의 정의는 ‘동적’이라는 용어의 사용 동기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dynamic’의 어원이 그리스어 *dynamikós* (‘powerful’)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von Wright (1951)이 해당 용어를 ‘~에게 어떤 행위를 할 내부 동력(power)이 있음’ 정도의 의미로, 능력과 의지 의미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도입한 것이 아니었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다. (21)의 논의들에서 ‘dynamic’의 어원, 혹은 ‘동적’의 의미에 대해 어떤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용어 ‘dynamic’에 대한 본고의 추측과 매우 유사한 기술이 (21)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동적 양상 범주 설정의 필요성, 동적 양상 범주 전체에 대해 하

나의 의미적 설명을 제시할 가능성, 그리고 그 의미가 ‘동적’이라는 용어로 적절히 대표될 가능성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하나의 양상 표현이 인식, 당위, 동적 양상 의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우가 매우 빈번함을 생각하면, 동적 양상 범주에 대한 정의는 그 자체로 온전한 수준을 넘어서 인식 양상, 당위 양상에 대한 정의와 상호 호환가능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이어서는 가능세계의미론에서의 동적 양상 범주 관련 논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가능세계의미론은 양상 표현의 중의적 해석과 관련하여 강한 설명력을 가지는 이론이다.

3.3. Kratzer 이론에서의 동적 양상 관련 설명

Kratzer는 이 글에서 주목하는 동적 양상을 양상 범주의 하나로 설정하지는 않는다.²⁹ 그럼에도 동적 양상 범주와 관련되는 직관적인 이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본고에서 가능세계의미론의 방식으로 동적 양상을 정의하고자 할 때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

Kratzer (1977)에서는 영어의 ‘must’와 ‘can’의 다양한 의미 해석을 보일 때, 인식, 당위 해석과 함께 기질 해석, 능력 해석을 동등한 지위로 제시하였다. 각각의 의미에 대해 엄밀한 의미론적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기질, 능력 의미를 중립적 ‘must’, ‘can’과 분리하여 맥락적 의미의 ‘in terms of~’의 표현구조로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의미를 인식 해석, 당위 해석과 함께 양상 의미의 한 해석으로 인식한 것이다.

Kratzer (1981/1991)은 Kratzer (1977)에서 제안한 대화 배경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대화 배경이 양상 문장의 해석에서 양상 기반(modal base)과

29 Portner (2009)는 동적 양상 범주를 설정하고는 있으나 동적 양상에 대해 명시적인 의미 정의는 제시하지 않으며, 그 외연도 이 글의 것과는 다르다. Portner (2009)는 이 글의 동적 양상을 ‘volitional modality’로 보고 이 외에 ‘quantificational modality’라는 범주를 추가로 상정하면서, 동적 양상을 이 두 양상 범주를 포괄하는 상위 범주로 설정한다.

순서화 근거(ordering source)라는 두 가지 구별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양상 기반이 접근가능한 세계들의 집합을 산출한다면, 순서화 근거는 그 집합 구성원들에 대해 순서를 매긴다. 양상 의미의 두 축과 관련하여서는 양상 기반은 양상 부류의 결정에, 순서화 근거는 양상 강도 및 구체 의미의 결정에 각각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양상 기반으로는 인식적 양상 기반과 정황적(circumstantial) 양상 기반이 설정되는데,³⁰ 이에 따라 양상 부류로는 인식 양상과 정황 양상의, 두 부류로의 구분이 가정된다. 즉 Kratzer (1977)에서는 인식 양상과 동등한 지위로 다루었던 당위, 능력, 기질 등의 의미를 Kratzer (1981/1991)에서는 정황 양상의 하위(구체) 의미로 그 지위를 변경한 것이다. 또한 순서화 근거를 논하는 부분에서 당위적 대화 배경, 소망적 대화 배경이 논의된 것과 달리 능력, 기질 의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³¹ 정황 양상의 하위 부류로 당위 해석, 소망 해석 등은 설정될 수 있지만, 동적 해석에 해당하는 부류는 따로 설정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Kratzer (1981)을 개정한 Kratzer (2012, pp. 21-69)에서는, 학계에서 ‘epistemic-root’의 구분이 안정적인 주류로서 자리 잡았음을 이야기하면서,³² Kratzer (1981)에서 사용했던 정황 양상 대신 근문 양상이라는 용어

30 “인식적 양상을 사용할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우리의 세계에서 무엇이 그 경우일 수 있는가 혹은 그 경우여야 하는가이다. 정황적 양상을 사용할 때 우리의 관심은 특정 종류의 정황들이 주어졌을 때,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 혹은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있다. 이때 특정 종류의 정황은 특정 종류의 사실이다. 외부 세계에 관한 사실들, 우리의 몸, 혹은 우리의 마음 같은 것들이다.” [A. Kratzer (1981), p. 302] 이러한 설명에서 이 글의 관심 대상인 동적 양상은 인식 양상이 아니라 정황 양상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31 A. Kratzer (1981), pp. 295-296.

32 많은 연구에서 양상 표현이 그 통사적 특성에 따라 크게 인식(epistemic) 양상과 근문(root) 양상의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인식 양상 표현은 인상(raising) 동사와 유사하게 하나의 명제를 단일 논항으로 취하는 것으로, 근문 양상 표현은 통제(control) 동사와 유사하게 하나의 개체와 하나의 동사구리는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식 양상은 IP/TP 층위에서, 근문 양상은 VP 층위에서 실현된다는 관찰

를 사용하고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제공한다.^{33, 34} 근문 양상 표현은 그것의 지정어(specifier) 위치에 실현된 개체들에 근거('anchored to')하며 이때 지정어 자리에 오는 개체들은 의미적으로 다양한 유형일 수 있다는 Hackl (1998)의 논의를 기반으로, 근문 양상을 '개체의 내재적 속성이나 정황 혹은 시공간적 위치와 관련된 사실들에 주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특징들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근문 양상이 비인식 양상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라는 점에서, 이 글에서 주목하는 동적 양상 범주 또한 (22)의 특징들을 모두 가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2) 근문 양상 표현(root modals)은,

ㄱ. 미래지향적이다.

이다[R. Jackendoff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The MIT Press; V. Brennan (1993), *Root and Epistemic Modal Auxiliary Verb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h.D. dissertation 등].

- 33 인식 양상 부류와 대비되는 또 다른 양상 부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root'의 기원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주로 생성문법 계열의 논의들에서 사용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root'를 통사적 구조에서의 특정 위치를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태도인 듯하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도 'root'를 통사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근문'[임동훈(2008), 「한국어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어휘학회, pp. 211-249]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점점 'root'의 엄밀한 정의적 의미보다는 그것이 지시하는 외연 자체가 부각되면서 인식 양상이 아닌 양상 범주들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root'의 사용 의미가 느슨해졌다[J. Coates (1983),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Croom Helm; Kratzer (2012) 등]. 또 한편으로는 양상어의 역사적 발달을 보이는 논의들에서 개념적으로 보다 기초적인 양상 의미 부류를 뜻하거나 역사적 발달에서 더 선행하는, 어휘적인 의미가 강하게 남아 있는 부류를 지시하는 용어로 'root'가 사용되기도 하였다[E. Sweetser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et al. (1994) 등]. '뿌리, 근원적인'으로의 번역은 이러한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34 Kratzer는 학계의 흐름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여전히 비인식(non-epistemic) 양상의 외연을 지시하는 용어로 'circumstantial'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하였다. 그는 "root'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epistemic-root' 대비에서의 'epistemic'이 정말 지식과 관련되는 의미로 쓰인 것 같지도 않다"[A. Kratzer (2012), pp. 49-50]고 말하였다.

- ㄴ. 인물, 사물, 시공간적 위치의 성향(propensities)과 잠재성(potentials)에 대해 말한다.
- ㄷ. 정황들(circumstances)이 사건의 발생을 허가하거나 방해한다. 정황들이 사건 발생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ㄹ. 알고 있는 사실들 중 특정 종류의 사실들은 무시하면서 쓰일 수 있다. [A. Kratzer (2012), pp. 51-52]

먼저 (22ㄱ)은 동적 양상이 인식 양상과 그것이 관심을 두는 사실의 부류에서 크게 구별됨을 말해 준다. 인식 양상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사실들을 함축하거나 시사하는 증거들에 관심을 둔다면 동적 양상은 가능한 혹은 필연적인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인물, 사물, 장소와 관련되는 내적·외적 정황들에 관심을 둔다.³⁵ 동적 양상 표현들이 자주 미래성 표지를 겸하는 범언어적인 경향('will', '-을 것이-')이나, 과거시제소가 먼저 결합되면 양상 표현이 주로 인식 해석을 받는 현상('-었을 수 있-', '-있음 직하-')은 모두 이러한 의미적 속성과 관련된다.

(22ㄴ), (22ㄷ)에서는 동적 양상 표현을 다른 양상 표현들과 동일한 이론적 틀에서 분석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22ㄴ)은 동적 양상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라고 생각될 정도로 동적 양상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포함하고 있는 듯 보인다. 만약 (22ㄴ)이 문장 해석에서 다른 대화 배경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22ㄴ)을 동적 대화 배경에 대한 기술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적 양상 범주를 정의할 수 있다. (22ㄷ)은 동적 양상 표현의 경우, 그 양상적 힘이 필연성보다는 주로 가능성의 영역에 위치할 것임을 암시한다. 실제로 그러한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이를 통해 적어도 동적 양상 표현이 다른 양상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양상 강도를 그 의미 부분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_ㄷ)을 통해서도 동적 양상이 인식 양상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한 지점을 확인하게 된다. 인식 양상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과 달리, 동적 양상은 ‘특정한 종류’의 사실들에만 집중할 수 있다. 동적 양상의 의미로 범주 전체를 대표할 의미가 아니라 개별 문장에서의 구체 의미인 능력, 의지, 기질이 부각되어 온 것은, 이러한 의미적 본성과 관련된다. ‘나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 그치만 치지 않을 거고 지금은 피아노도 없어’와 같은 문장이 의미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데서 우리는 동적 해석에 ‘특정 사실들’만이 선택적으로 고려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능력에 따르면 내가 피아노를 치는 사태가 가능함을 말하는 데에는, 나의 의지도, 나의 현재 상황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해당 문장은 나의 능력만을 고려하여 발화, 해석될 뿐이다.

이처럼 Kratzer의 논의에서는 동적 양상을 하나의 독립적인 양상 범주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 동적 양상으로 다루고, 또 기존 논의들에서 그렇게 다루어 온 ‘능력, 의지, 기질’ 등의 의미는 정황 양상에 속하는 주요 의미 중 하나로 다루어졌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하위 부류가 설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의미는 인식 양상뿐 아니라 당위 양상과도 그 의미적 특성에서, 또 언어사용자들의 직관에서 분명하게 구분된다.³⁶ 이에 이 글은 Kratzer의 이론을 따르면서도, 분명하게 구분되는 하나의 범주로서 동적 양상을 추가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범주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36 Kratzer (1981, 1991)은 이론 체계에서는 인식 양상과 정황 양상의 이원적 분류를 가정하나, 그 논의의 도입부에서는 언어사용자들이 크게 인식, 의무, 능력의 세 가지 의미를 구분하여 인식함을 보이는 예문을 들면서 글을 시작한다. 직관적으로는 세 의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3.4. 동적 양상에 대한 가능세계의미론적 정의

인식 양상 범주가 그것이 인식적 대화 배경과 결합한다는 사실에서 정의되듯이, 동적 양상 범주는 동적 대화 배경을 정의함으로써 정의될 수 있다. 다음은 인식적 대화 배경, 당위적 대화 배경에 대한 Kratzer (1981)의 의미적 정의와 평행한 방식으로,³⁷ 앞 절들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참고하여 동적 대화 배경에 대한 의미적 정의를 마련해 본 것이다.³⁸

- (23) 동적 대화 배경은 명제들의 집합을 다음과 같은 W 의 구성원들에 할당하는 함수 f 이다. W 의 원소인 어떤 가능세계 w 에 대해서도, $f(w)$ 는 w 에서 어떤 개체 혹은 상황의 내재적 고유성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모든 명제들을 포함한다.

능력, 의지, 기질과 같은 의미는 ‘내재적 고유성’(intrinsic identities)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묶일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적 양상 범주는 다음의 (24)와 같이 정의된다. 동적 양상 범주는 정황적 대화 배경을 양상 기반으로, 동적 대화 배경을 순서화 근거로 삼아 명제의 필연성 혹은 가능성을 논하는 모든 표현들을 포괄한다.

- (24) 특정 개체 혹은 상황의 내재적 고유성에 따라 문장이 기술하는 내용이 참일 가능성 혹은 필연성을 말하는 경우, 이를 동적 양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동적 양상 문장의 해석은 문장이 기술하는 개

37 A. Kratzer (1981), pp. 295–296.

38 즉, 본고의 동적 양상 정의는 동적 양상에 대한 기술주의적·유형론적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형식의미론적인 의미 정의를 시도한 결과이다. 형식의미론(가능세계의미론) 전통에서는 동적 양상에 대한 범주적 정의가 따로 없었고, 기술주의 및 유형론적 연구에서는 동적 양상에 대한 범주적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했으나 그것이 다른 양상 범주들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는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체 혹은 상황에 직접적으로 근거한다. 이러한 개체 혹은 상황의 내재적 고유성에는 능력, 기질, 의지, 시공간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많은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된 언어 직관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Kratzer의 논의에서는 동적 대화 배경을 따로 설정하지 않기에, 대부분인 정황 양상 범주에서 능력, 의지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따로 모아 범주화할 수 없었다. 그러나 (23)과 같은 동적 대화 배경을 설정함에 따라, 이제 우리는 형식의미론적 접근을 취하면서도 당위 양상과 마찬가지로 양상의 한 하위 범주로서 동적 양상을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24)의 정의는 또한 기존 정의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발견된 것이다. 첫째, 인식 양상, 당위 양상과 동등하게 접근가능관계의 의미적 특성에 근거하여 동적 양상을 정의한다. 이에 하나의 양상 표현이 인식 해석, 당위 해석뿐 아니라 동적 해석을 가질 때에도, 이를 맥락에 따른 의미 해석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동적 양상 또한 본연적으로 가능과 필연에 대한 말하기로 정의됨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기존 한국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동적 양상 표현의 양상 강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셋째, (23)과 같이 동적 대화 배경을 한정하면 범주의 명칭으로 ‘dynam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동기 또한 뚜렷해진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dynamic’은 어원을 고려할 때, ‘~에게 어떤 행위를 할 내부 동력이 있음’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적 양상을 ‘개체 혹은 상황의 내재적 고유성’을 근거로 한 가능과 필연에 대한 말하기로 정의하는 이 글의 분석과 상통한다. 이제 이러한 안정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동적 양상 범주를 논의해 보자.

4. 한국어의 동적 양상 범주

한국어의 동적 양상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우언적 구성들이 포함된다.³⁹

- (25) ‘-을 수 있-’, ‘-을 수 없-’, ‘-을 줄 알-’, ‘-어야 하-’, ‘-을 만하-’,
 ‘-음 직하-’, ‘-을 것이-’, ‘-을 테-’, ‘-고자 하-’, ‘-으려(고) 하-’,
 ‘-을까 보-’, ‘-을까 하-’⁴⁰

관련 기존 논의들에서 양상 우언적 구성으로 다루어진 표현들 중 (24)의 의미적 정의에 부합하는 표현들을 추린 것이다.⁴¹ (25)의 표현들이 동적

- 39 양상 의미를 표현하는 단 단어(multi-words) 구성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우언적 구성(periphrastic construction) 외에도 보조용언 구성, 의존명사 구성, 양태 구문, 문법적 연어 등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M. Haspelmath (2000), “Periphrasis,” *Morphology* (ed. by G. E. Booij, C. Lehmann, and J. Mugdan), Berlin: Walter de Gruyter, pp. 654-663; 박진호(2011); 도재학(2014), 「우언적 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국어학』 71, 국어학회, pp. 289-322 등에 따라 이들을 양상 우언적 구성으로 지시하기로 한다. 우언적 구성은 단일 형식이 출현할 자리에 대체되어 쓰일 수 있는 단 단어 표현들을 지칭하기 위해 도입된 용어이다. 계열적 관계에서 정의되는 개념인 것이다. 가령, ‘-을 것이-’는 ‘-겠-’과 계열적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양상 우언적 구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 40 이 외에도 ‘-기 쉽-’을 동적 양상 표현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김태인(2020), 「‘쉽다’가 구성하는 구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22(1), pp. 55-58에서는 ‘-을 수 있-’이 능력, 근원적 가능성, 인식적 추측의 의미로 Bybee *et al.* (1994), p. 199에서 가정한 일련의 문법화 과정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기 쉽-’에서도 동일한 의미들이 모두 관찰됨을 논의하였다.
- 41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강소영(2004), 『명사구 보문 구성의 문법화』, 한국문화사; 문병열(2007), 「한국어의 보문 구성 양태 표현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93, 국어연구회; 도재학(2014), 「우언적 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국어학』 71, 국어학회, pp. 289-322; 손혜옥(2016); 신서인(2017), 「양태 표현의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 『우리말 글』 72, 우리말글학회, pp. 1-2; 명정희(2021a), 「한국어 양태 구문의 의미 해석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논의에 따라, 동적 양상 표현에 바람의 ‘-고 싶-’, ‘-기 바

양상 해석을 가짐은 아래의 예문들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⁴²

- (26) 가. 그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 [손혜옥(2016), p. 167]
 나. 철수는 수영을 할 수 없어요. [명정희(2021a), p. 195]
 다.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알았다. [신서인(2017), p. 83]
 르. 우리 집은 1층이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다.
 [손혜옥(2016), p. 167]
 모. 영화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에텔바이스>는 그 멜로디 자체가
 귀여움을 받을 만하다.⁴³ [다카치 토모나리(2014), p. 40]
 바. 한 번 해봄직하다. [도제학(2014), p. 293]
 사. 오늘은 제가 살 거예요. 돈 내지 마세요.
 [명정희(2021a), p. 191]
 오. 이 핑계 저 핑계 핑계도 많다. 그렇지만 두고 보아라. 오늘도 떡
 집을 안 오면 내일 해님을 못 보게 해줄 터이다.
 [다카치 토모나리(2014), p. 288]
 자. 5공비리의 수사에 착수한 경찰수사의 귀추를 주시하고자
 한다. [문병열(2007), p. 98]
 차. 그러잖아도 오늘 밤에는 들어가려고 한다.
 [문병열(2007), p. 98]

라-', '-으면 좋겠-', '-있으면 싶-', '-있으면 하-'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표현의 의미는 가능과 필연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의 정의에 따르면 바람은 양상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

- 42 (11')을 통해 '-어야 하-'가 '-을 수 있-'과 대응되어 당위 양상뿐 아니라 인식, 동적 양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서는 '-어야 하-'의 동적 용법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26)에 '-어야 하-'에 대한 예문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 43 다카치 토모나리(2014), p. 40에서는 이러한 '-을 만하-'를 준양태적 구성으로 본다. 그러나 이 글의 정의에 따르면 '-을 만하-'는 '-을 수 있-'과 함께 기질의 동적 해석을 갖는 양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ㄷ. 난 내일 그만 우리집으로 갈까 봐.

[문병열(2007), p. 99]

ㄹ. 내년에 나는 유학을 갈까 한다.

[명정희(2021a), p. 192]

(26)의 문장들은 모두 개체 혹은 상황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명제 내용이 참일 가능성 혹은 필연성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6ㄱ)-(26ㄴ)은 개체의 능력 혹은 기질이나 장소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26ㄷ)-(26ㄹ)은 개체의 심적 상태(의지)에 따라 접근가능세계가 한정된다는 데서 모두 동적 대화 배경을 양상 해석의 맥락으로 취하는 문장임을 볼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동적 양상 범주의 범주적 특성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여기서 (26)의 표현들이 보이는 개별적인 의미 특성을 세세히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언급된 기존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다.⁴⁴

동적 양상이 양상의 한 부류라는 점에서, 우리는 동적 양상 우연적 구성들에 대해서도 그 양상적 힘을 논의해야 한다. 쉬운 접근을 위해 동적 해석 외에도 다른 양상 해석을 함께 가지는 ‘-을 수 있-’, ‘-을 것이-’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해 보자.

(27) ㄱ. 한 손으로 머리를 묶을 수 있어?

ㄴ. 이러다 지구가 곧 멸망할 수도 있고요.

ㄷ.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죠.

(28) 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ㄴ. 결과가 꼭 나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44 같은 이유에서 동적 양상 표현들의 내부 구조를 문제삼지도 않을 것이다. 동적 양상의 내부 구조에 대한 분석은 다카치 토모나리(2014), 이정훈(2020), 명정희(2021a)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을 수 있-’과 ‘-을 것이’는 (27ㄱ), (28ㄱ)에서 표현되는 동적 양상 의미 외에도 (27ㄴ), (27ㄷ), (28ㄴ)에서 볼 수 있듯 약한 추측, 허가, 강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직관적으로 약한 추측은 강한 추측과, 허가는 의무와 양상 강도에서 서로 대비되는데, 가능세계의미론의 틀에 따르면, 이는 각각 인식적 가능성과 인식적 필연성, 당위적 가능성과 당위적 필연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⁴⁵ 이때 앞쪽에 위치하는 ‘인식적’, ‘당위적’은 양상 의미의 두 구성 성분 중 양상 부류에 대한 정보를, 뒤쪽에 위치하는 ‘가능성’, ‘필연성’은 양상 표현의 고정적 의미인 양상적 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틀 안에서 (27ㄱ)의 양상 의미는 ‘동적 가능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가능성이라는 ‘-을 수 있-’의 어휘적 의미가 개체의 고유성을 판단 근거로 고려하는 대화 배경을 만나, (27ㄱ)과 같이 해석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8ㄱ)의 ‘-을 것이-’는 (28ㄴ)의 ‘-을 것이-’와 필연성이라는 양상적 힘은 공유하면서 그 대화 배경에서는 (28ㄴ)과 구별된다. 개체의 의지에 따른 필연을 말하고 있으므로 (28ㄱ)의 양상 의미에는 ‘동적 필연성’이라는 표찰을 붙일 수 있다. 따로 예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을 수 없-’, ‘-어야 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나머지 표현들, ‘-을 줄 알-’, ‘-을 만하-’, ‘-음 직하-’, ‘-고자 하-’, ‘-으려(고) 하-’, ‘-을까 보-’, ‘-을까 하-’, ‘-을 테-’의 양상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이 동적 맥락과 제한적으로 어울리는 양상 표현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인식적 해석, 당위적 해석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그 양상 강도를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⁴⁶ 이들의 양상 강도는 능력, 의지 의미의 양상적 힘을 언급한 기존 분석을 참고하

45 보다 엄밀하게는 ‘낮은 가능성’, ‘약한 필연성’ 정도로 파악될 것이다. 아래에서 다시 논의한다.

46 ‘-을 수 있-’, ‘-을 것이-’와 그 출현 빈도는 다르지만, ‘-을 줄 알-’, ‘-을 만하-’, ‘-음 직하-’, ‘-을까 보-’, ‘-을까 하-’, ‘-을 테-’의 표현들도 인식적 해석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들 표현의 인식 해석에는 과거 시제소의 선결함이 강하게 요구된다.

는 데서, 그리고 동일 양상 부류에 속하는 표현들 사이의 양상 강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능력 의미와 관련하여 Palmer (1990, p. 6)는 “능력에 대응되는 필연성의 양상 의미는 없는 듯하다”고 말하면서 능력 의미가 무표적으로 동적 ‘가능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van der Auwera and Plungian (1988, p. 80)은 “참여자 내부 양상 중 가능성의 경우로는 참여자의 능력을 다루고 필연성의 경우로는 참여자의 욕구를 다룬다”고 하여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능성의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영어의 ‘must’가 능력의 동적 필연성의 의미로 쓰인 예문이 논의되며,⁴⁷ 필연성의 ‘-어야 하-’가 ‘-을 수 있-’처럼 의무 양상과 동적 양상에 모두 쓰일 수 있음이 언급된다.⁴⁸ 능력의 의미 영역이 특정한 양상적 힘과만 제한적으로 결합한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의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표현에 따라 양상적 힘이 다양할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듯하다. 가령, Huddleston and Pullum (2002, pp. 205-208)을 보면, 영어에서 의지를 나타내는 양상 표현으로는 ‘will, intend to, want to, be willing to’ 등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 중 ‘will’은 필연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intend to, want to, be willing to’는 가능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어 연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령, ‘-을까 하-’는 ‘-을 것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의지를 표현한다고 분석되어 왔다.

이처럼 특정 양상 의미가 특정한 양상적 힘과만 결합한다고 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개별 표현들의 양상적 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현 간 의미를 직접 비교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관련하여 다카치 토모나리(2014), 손혜옥(2016), 명정희(2021a)에서 제시한 개별 양상 표현에

47 F. R. Palmer (1990), pp. 129-130.

48 임동훈(2008), p. 228.

[표 1] 동적 양상 우연적 구성들의 양상 강도 비교

	-----[가능성]-----		--[필연성]--	
[능력/기질]	‘-을 수 있-’	‘-을 만하-’/ ‘-음 직하-’	‘-을 줄 알-’	‘-을 수 없-’ ‘-어야 하-’
[의지]	‘-을까 보-’/ ‘-을까 하-’	‘-고자 하-’/ ‘-으려(고) 하-’	‘-을 테-’/ ‘-을 것이-’	

대한 의미 분석을 참고하였다. [표 1]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동적 양상 표현들이 가능성~필연성 척도에서 보이는 분포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해 본 것이다.⁴⁹

[표 1]은 Kratzer식의 척도를 따라,⁵⁰ 대략적으로 ‘-을까 보-’/‘-을까 하-’는 ‘slight possibility’에, ‘-을 만하-’/‘-음 직하-’, ‘-고자 하-’/‘-으려(고) 하-’는 ‘good possibility’에, ‘-을 줄 알-’, ‘-을 테-’/‘-을 것이-’는 ‘weak necessity’에, ‘-을 수 없-’, ‘-어야 하-’는 ‘necessity’의 의미적 속성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을 수 있-’은 ‘-을 수도 있-’보다는 더 높은 가능성을 표현하나 일반적으로는 가능성 영역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보인다. 이러한 직관은 아래의 예문들에서 어느 정도 확인되는 듯하다.

- (29) 가. 아이는 두발자전거를 {탈 수 있다, 탈 줄 안다, 타야 한다}.
- 나.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다, 상할 만하다/상함 직하다}.
- 다. 나는 내일 소풍을 {갈까 한다, 가려고 한다, 갈 테다/갈 것이다}.

49 [표 1]의 행 구분이 엄격한 구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을 수 있-’, ‘-을 수 없-’, ‘-어야 하-’, ‘-을 것이-’는 표에서는 [능력/기질], [의지] 중 하나의 의미와 관련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 세부 의미 모두와 어울릴 수 있다.

50 A. Kratzer (1991), pp. 644-645.

가야 한다.

(29)의 예문들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왼쪽에 놓인 표현들에 비해 오른쪽에 놓인 표현들을 들었을 때 화자가 문장이 기술하는 내용이 참이 될 가능성에 대해 보다 확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기존 논의들에서 언급된 인상, 그리고 필자의 직관에 주로 근거한 것으로 경험적으로 보다 엄밀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후 보충적 논의가 필요하다.⁵¹

마지막으로 양상적 힘의 영역을 크게 삼분하는 태도를 보인 기존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인식 양상에 대해 제시된 분석이긴 하지만, 박재연(2006, p. 81)은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완전한 확신을 가지는 경우, 적어도 오십 퍼센트 이상의 확신을 가지는 경우, 오십 퍼센트 미만의 확신을 가지는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을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이라고 명명한다. 가능성의 의미 영역을 가능 혹은 불가능이 아니라, 적은 가능성과 높은 가능성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명정희(2021a, pp. 19-24)도 유사한 가정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능성, 필연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 마련이-’, ‘-는 법이-’, ‘-을 줄 알-’ 같은 표현들의 설명을 위해 총칭성이라는 양상 의미를 추가로 도입한다.⁵² Huddleston and Pullum (2002, p. 177)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면서 자연언어의 양상 분석에서 가능성, 필연성에 더해 중간적인 양상 강도를 추가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다.

51 한 심사위원께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 개별 양상 표현의 양상 강도를 면밀히 파악, 비교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한국어 예문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필자는 [표 1]의 가정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실험언어학적 접근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52 양상적 힘을 크게 가능성, 총칭성, 필연성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총칭성(genericity)은 그 용어 자체에서, 가능성, 필연성과는 달리 양상적 힘뿐 아니라 양상 부류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포함하고 있다. 양상 강도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을 듯하다.

- (30) ㄱ. The meeting must be over by now. [strong]
 ㄴ. The meeting should be over by now. [medium]
 ㄷ. The meeting may be over by now. [weak]

중간 강도는 영어의 ‘should, ought, probable, likely’ 등의 의미를 설명해 주며, 강과 약이 척도의 양 끝을 차지한다고 할 때 약보다는 강 of 극단에 더 가까이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논리적으로는 가능성이 ‘0’이 아닌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이지만, 자연언어의 설명을 위해서는 가능성의 의미를 가능성이 낮음의 영역으로 축소하고, 필연성까지는 아니지만 필연성에 가까운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영역을 따로 설정하는 처리가 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 개의 양상 강도를 설정하는 견해가 독립적인 논의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온 것은 분명 우리의 직관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후 전체 양상 범주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실제 언어 생활에서 직관적으로 양상적 힘을 크게 낮은 가능성, 높은 가능성, 필연성 정도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동적 양상 범주의 대화 배경, 그리고 양상적 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미적 정의를 바탕으로 동적 양상 범주를 확립하였으며 동적 양상 표현들이 크게 나누어 가능성(낮은 가능성), 개연성(높은 가능성/약한 필연성), 필연성의 양상적 힘을 나타낼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국어의 양상 범주가 양상 부류와 양상 강도를 두 축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짜임새 있는 체계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⁵³

‘추측/강한 추측/확신’, ‘허가/권고(권유)⁵⁴/의무’ 등으로 기술되었던 양

53 인식, 당위, 동적 외에 다른 양상 해석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Brennan (1993), Portner (2009)에서는 ‘quantificational modality’를 또 하나의 양상 부류로 제시하는데,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러한 하위 범주 설정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54 선행 연구에서는 당위적 가능과 당위적 필연의 중간적인 의미를 ‘advice, suggestion’ 등

[표 2] 한국어 양상 범주 체계: 대화 배경 X 양상적 힘

	가능성	개연성	필연성
인식적 대화 배경	인식적 가능성	인식적 개연성	인식적 필연성
당위적 대화 배경	당위적 가능성	당위적 개연성	당위적 필연성
동적 대화 배경	동적 가능성	동적 개연성	동적 필연성

상 의미는 위의 틀에 따라 ‘인식적 가능성/개연성/필연성’, ‘당위적 가능성/개연성/필연성’으로 정연하게 설명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할 때, 많은 양상 표현들이 보이는 다의성 혹은 중의성에 대해 명시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가령, ‘-을 수 있-’이 추측, 허가, 능력의 다의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관찰은, ‘-을 수 있-’이 ‘가능성’이라는 양상적 힘을 고정적 의미로 가지면서, 문장의 해석에서 고려되는 대화 배경의 성격에 따라 각각 인식적 가능성, 당위적 가능성, 동적 가능성의 구체적인 해석을 갖게 된 결과로 설명된다. 이는 ‘-어야 하-’, ‘-을 것이-’ 등의 다른 양상 우언적 구성뿐 아니라, ‘-겠-’ 등의 양상 어미의 설명에서도 다르지 않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양상 표현의 의미를 어휘적 의미와 맥락적 의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가능세계의미론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동적 양상 범주에 대한 면밀한 의미론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적 양상은 “문장이 기술하는 내용이 참일 가능성 혹은 필연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양상 범주들과 동일 특성을 공유하면서, 그러한 판단 근거가 “특정 개체 혹은 상황의 내재적 고유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 범주

으로 기술하였다. 이에 대한 적절한 번역은 ‘권고’ 혹은 ‘권유’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어 동적 양상 표현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들 표현 간 의미 기능 분담 양상 그리고 문장에서의 중의적 해석 양상 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각각 전자는 동적 양상 표현의 양상적 힘과 관련하여, 후자는 대화 배경의 한정과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다만 지면의 제약상 동적 양상 범주의 의미적 특성과 그 통사적·정보 구조적 특성의 관련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못하였다. ‘특정 개체’에 대해 그 ‘내재적 고유성’을 문제 삼는 동적 양상 범주의 의미 특성은 동적 양상 표현이 문장에서 지정어-VP의 결합 층위에 작용한다는 통사적 특성과 긴밀하게 관련될 수 있다. 더불어 동적 양상 범주는 접근가능세계 구성의 출발점을 ‘특정 개체’에 둔다는 점에서 문장의 화제가 양상 기반 한정에 매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른 양상 범주들과 비교할 때 동적 양상 문장에서는 양상문의 의미구조가 문장의 정보구조와 훨씬 직접적인 대응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한국어는 문말에서 복수의 양상 표현이 교착하여 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정보구조 표지가 매우 발달한 언어라는 점에서 양상문의 의미구조와 통사구조·정보구조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다. 관련하여 이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논저

- 강소영(2004), 『명사구 보문 구성의 문법화』, 한국문화사.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김용범(2017), 「Modal Categories and Dynamic Modality in English」, 『영어학』 17(4), 한국영어학회, pp. 701-727.
 김태인(2020), 「‘쉽다’가 구성하는 구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22(1), pp. 43-

- 70.
- 다카치 토모나리(2014), 「현대 한국어 문법적 언어의 양태체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도재학(2014), 「우연적 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국어학』 71, 국어학회, pp. 289-322.
- 문병열(2007), 「한국어의 보문 구성 양태 표현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93, 국어연구회.
- 명정희(2021a), 「한국어 양태 구문의 의미 해석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명정희(2021b), 「'-어아/-어도 되-'의 양태 구문의 구조와 의미 해석」, 『언어학』 91,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pp. 139-164.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 손혜옥(2016), 「한국어 양태 범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시정곤·김건희(2009),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의 통사·의미론」, 『국어학』 56, 국어학회, pp. 131-160.
- 신서인(2017), 「양태 표현의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 『우리말글』 72, 우리말글학회, pp. 1-29.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 양정석(2016), 「한국어 양상 표현의 통사 의미 분석」, 『언어와 정보』 20(2), 한국언어정보학회, pp. 57-92.
- 염제일(2005), 「'-겠-'과 '-을 것'의 양태 비교 연구」, 『언어와 정보』 9-2, 한국언어정보학회, pp. 1-22.
- 이기용(1998), 『시제와 양상: 가능세계 의미론』, 태학사.
- 이정훈(2020), 「'-을 수 있-' 구문의 어휘항목과 통사구조 그리고 의미」, 『국어학』 95, 국어학회, 65-113.
- 임동훈(2008), 「한국어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pp. 211-249.
- 장경희(1995), 「국어의 양태 범주의 설정과 그 체계」, 『언어』 20(3), 한국언어학회, pp. 191-205.
- 전영철(2022), 「한국어 양상 범주의 형식의미론적 접근에 대하여」, 『인문논총』 79-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7-38.
- van der Auwera, J. and A. Ammann (2013), "Overlap between Situational and Epistemic Modal Marking,"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ed. by Matthew S. Dryer and Martin Haspelmath), Leipzig: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Available online at <http://wals.info/chapter/76>, Accessed on 2022-04-29.)
- van der Auwera, J. and V. Plungian (1998), "Modality's Semantic Map," *Linguistic Typology* 2(1), pp. 79-124.

- Brennan, V. (1993), *Root and Epistemic Modal Auxiliary Verb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h.D. dissertation.
- Bybee, J., R. Perkins, and W.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ung, W. J. (2019), "Decomposing Deontic Modality: Evidence from Korean," *Journal of Semantics* 36, pp. 665-700.
- Coates, J. (1983),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Croom Helm.
- von Fintel, K. and Gillies A. S. (2007), "Might Made Right," *To Appear in a Volume on Epistemic Modality* (ed. by Andy Egan and Brian Weatherson), Oxford University Press. <http://mit.edu/fintel/fintel-gillies-2007-mm.pdf>.
- Hackl, M. (1998), *On the Semantics of "Ability Ascriptions"*, m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Hacquard, V. (2010), "On the Event Relativity of Modal Auxiliari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8, pp. 79-114.
- Hacquard, V. (2006), *Aspects of Modality*, Cambridge/Mass., MIT Ph.D. dissertation.
- Haspelmath, M. (2000), "Periphrasis," *Morphology* (ed. by G. E. Booij, C. Lehmann, and J. Mugdan), Berlin: Walter de Gruyter, pp. 654-663.
- Heim, I.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 Huddleston, R. and G.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The MIT Press.
- Kratzer, A. (2012), *Modals and Conditionals*, Oxford University Press.
- Kratzer, A. (1991), "Modality," *Semantik/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ed. by A. von Stechow and D. Wunderlich), Berlin: de Gruyter, pp. 639 - 650.
- Kratzer, A.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Words, Worlds, and Contexts* (ed. by H.-J. Eikmeyer and H. Rieser), Berlin: de Gruyter, pp. 38-74.
- Kratzer, A. (1977), "What "must" and "can" Must and Can Mea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1), pp. 337-355.
- Palmer, F. R. (1986/2001),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1990),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 Routledge.
- Portner, P. (2009), *Mod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Radden, G. and R. Dirven (2007), *Cognitive English Gramma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weetser, 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n Wright, G. H. (1951), *An Essay in Modal Logic*, Amsterdam, Netherlands: North-Holland.

원고 접수일: 2022년 4월 12일, 심사 완료일: 2022년 5월 15일, 게재 확정일: 2022년 5월 18일

ABSTRACT

A Study on Dynamic Modality Based on Possible Worlds Semantics

Paik, Innyoung*

This paper is about a semantic analysis of dynamic modal categorie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possible worlds semantics. Possible worlds semantics recognizes the meaning of modal expressions by dividing them into two parts, lexical meanings and contextual meanings. Dynamic modals share the same characteristics with other modal categories in that “they refer to the possibility or necessity that the content described in a sentence is true”. But they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modals in that the basis for such judgment depends on “the intrinsic uniqueness of a specific entity or situation”. Based on these defining characteristics, it was possible to present an appropriate explanation for the division of meaning and function of Korean dynamic modal expressions and their multiple interpretation in sentences. The former was explained with respect to the modal force of modal expressions and the latter with regard to the restriction of the context, which is called conversational backgrounds.

Keywords Modality, Dynamic Modality, Periphrastic Construction, Possible Worlds Semantics, Ambiguity, Context-dependency, Conversational Backgrounds, Modal Operator, Modal Flavor, Modal Strength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